

# 歌辭의 갈래적 성격 연구(1)

- 이론적 기반 모색과 연구사 검토 -

한 창 훈\*

## 목 차

- I. 序論
- II. 갈래 연구의 이론적 기반 모색
- III. 歌辭의 갈래 규정에 관한 초창기 업적과 그 문제점
- IV. 교술갈래 설정(4분법)과 그 의미
- V. 교술갈래 설정(4분법)의 비판과 그 대안의 검토
- VI. 앞으로의 연구방향

## I. 序 論

한국 문학에 산재하고 있는 여러 역사적 갈래 중에서 특히 판소리와 歌辭는 그 개념 규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sup>1)</sup> 이에 학계에서도 이미 수많은 이설이 정리되지 않은 채 제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이중에서 歌辭의 갈래 규정에 관한 기존의 쟁점과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일련의 작업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문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 중에서 갈래에 대한 이론적

\* 고려대 대학원 박사과정

1) 판소리의 경우 각각 서사 갈래, 희곡 갈래로 혹은 음악의 차원에서 갈래의 특성을 규정하려는 시각들이 제출되었고(김홍규, “판소리 관계 연구논저 목록”, 『판소리 연구』 1집, 판소리 학회, 1989, pp.290~291. 참조), 최근에는 미술에서의 부조 개념을 이용해 그 갈래적 복합성을 해명하려는 시도까지 나온 바 있다(김홍규, “판소리의 장르적 성격과 부조”, 『동양학』 20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90).

혹은 실제적 연구는, 그것이 문학의 존재 양식과 구성 원리를 밝히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 할 만하다. 따라서 歌辭의 갈래 규정 문제는 그 자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일반론을 포함한 다각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歌辭의 갈래 규정을 논하기 이전에 그 이론적 배경을 먼저 개관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런 개관은 갈래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의 시야를 정리하고 넓혀주는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歌辭의 갈래 규정은 조운제에 의해 歌辭의 詩歌 규정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진 이래<sup>2)</sup> 많은 논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실이 제기되었다. 덧붙여 이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 수정,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다.<sup>3)</sup> 그러나 아직도 歌辭의 갈래 규정에 대해 만족할 만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무엇보다도 歌辭라는 문학 양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歌辭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면모 중에서 어떤 면에 치중하는가에 따라 그의 갈래 규정 역시 방향을 달리하게 되며, 또 어떤 한가지 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로써 歌辭의 총체적 면모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歌辭의 갈래 규정에는 '갈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그러면 구체적으로 '歌辭는 어떤 갈래에 속하며 그 특징과 의의는 무엇인가'라는 크고 작은 두가지 문제가 포괄적으로 엉켜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제 이상의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우선 갈래의 이론적 문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얻는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歌辭의 갈래 규정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한다. 여기서는 문학의 갈래를 2분 혹은 3분으로 나누는 초기 학자들의 업적에 대한 검토, 갈래의 4분법을 제창하고 歌辭를 신중 큰 갈래인 교술에 귀속시킨 조동일의 업적,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새로운 이론의 개척을 도모하는 일련의 업적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갈래 연구의 이론적 기반 모색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여기서는 우선 갈래 연구의 이론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

2) 조운제, 『조선 시가의 연구』(을유문화사, 1948).

3) 이의 자세한 문헌목록은 논문 말미에 첨부한 참고문헌에 저자별로 정리해 놓았다.

### 歌辭의 갈래적 성격 연구(1)

고자 한다.<sup>4)</sup> 오늘날 해당 전공 문헌에서 ‘장르’ 혹은 이의 한국적 표현인 ‘갈래’라는 개념이 사용될 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문학적인 기본 형식이고, 하나는 역사적인 형식에 대한 명칭이다. 즉 문학적인 기본 형식은 문학적인 의사 소통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유형으로 이해되고, 이 유형들은 다시 여러가지 다양한 역사적 갈래의 형상으로 구체화된다. 여기서 문학적인 기본 형식은 역사적인 갈래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역사적인 갈래에서 분리하여 그 명명 및 정당성을 연구하는 작업은 문학 연구의 본질적인 과제라 하겠다.<sup>5)</sup>

여기서 개별적인 기본 형식의 숫자와 본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서정·서사·극’이라는 세 개의 갈래는 적어도 서구 유럽 문학에 관해서는 가장 적당한 것으로 거듭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갈래들은 그 기본 형식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장구하게 지속되어 온 문화 구조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이며, 토도로프는 이를 ‘이론적 갈래’라고 부른다.<sup>6)</sup>

이와는 달리, ‘역사적 갈래’는 시간과 공간에 연결되어 있는 문학적인 의사 소통의 형식으로서 주제, 구성 그리고 문체적인 개별 특성들을 풍부하게 보여 준다. 여기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대부분 사회사적 환경의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문학적인 과거를 표준화해 놓은 작품에서 도출해낸 결과들이다. 이는 갈래의 사회사적 근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며, 개념과 용어의 규정은 대부분 문학 연구의 현장에서 그때 그때 이루어진다.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각 역사적 갈래의 개념 규정의 방법이 문제로 제기된다.

갈래에 대한 서구 학계의 관심을 요약하면, 헤르나디의 『장르론』<sup>7)</sup>과 파올러의 『문학의 종류』<sup>8)</sup>에서 대표적으로 가시화되어 나타나듯이, 큰 갈래(장르류)를 다룬 것과 작은 갈래(장르종)를 다룬 것으로 우선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큰 갈래와

4) 이 장의 서술은 특히 다음의 논저에서 힘입은 바 크다.

김현 편, 『장르의 이론』(문학과지성사, 1987).

김준오, 『한국현대장르비평론』(문학과지성사, 1990).

최유찬·오성호, 『문학과 사회』(실천문학사, 1994).

5) 초란 크라바, 백종유 역, “장르”, 『현대문학의 근본개념 사전』(술, 1996). 참조

6) 츠베트코 토도로프, 광광수 역, 『구조시학』(문학과지성사, 1977).

27) 폴 헤르나디, 김준오 역, 『장르론』(문장사, 1983).

8)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작은 갈래 중에서<sup>9)</sup> 어느 것에 치중하느냐는 것은, 결국 연구자의 갈래관에 달려있는 문제일 수 있지만, 가장 바람직한 연구형태가 이 두가지 작업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 모순점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다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한국 문학의 경우 갈래의 문제는 대부분 분류학의 수준에 그치고 그 체계적 이론이 아직은 빈약한 편이다. 그리고 그 체계마저 주로 서구의 문학 이론에 많이 빚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한국 문학 연구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歌辭 갈래 연구의 이론적 전제를 대략 네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고찰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갈래의 개념은 순전히 사변적으로 혹은 연역적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구체적 작품에 대한 관찰의 소산으로 귀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연구자들은 흔히 전자를 ‘이론적 갈래’라 하고, 후자를 ‘역사적 갈래’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사실은 갈래 연구가 이론과 실재를 견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함을 의미한다.

만약 이론적 갈래의 입장에서만 연구한다면 작품의 실재는 무시하고 미리 예상된 갈래상의 기대에 무리하게 맞추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반대로 역사적 갈래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전체를 보지 못하는 부분적 이해나 무정부주의적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에 대한 혼란의 과정이 歌辭의 갈래를 규정하는 문제에서도 잘 드러나게 된다. 본문에서 살펴볼 4분법적 입장과 그 비판이 이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위에서 보듯이 일반적으로 갈래라는 말은 두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그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것을 큰 갈래(장르류)와 작은 갈래(장르종)라는 개념어로 구분한다. 이 개념을 국문학의 장르 이론에 처음으로 적용시켜 설명한 이는 조동일인데,<sup>10)</sup> 그는 독일 문예학에서 쓰는 ‘Gattung(장르류)’와 ‘Art(장르종)’의 개념을 끌어와 이를 논리화 시킨 바 있다. 이에 그는 판소리는 ‘서사장르류에서 독자적 위치를 가진 독립된 장르종’이라 규정했다. 歌辭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歌辭라는 용어를 붙이는 일군의 작품을 작은 갈래라고 한다면, 이들이

9) 여기서 대체로 ‘큰 갈래’가 ‘이론적인 갈래’로 구성되며, ‘작은 갈래’가 ‘역사적인 갈래’로 구성되어 있음은 지적되어야 하겠다.

10) 조동일, “판소리의 장르규정”, 『어문논집』 1집(계명대 국어국문학회, 1966). 이후 이 논문은 『한국문학의 갈래이론』(집문당, 1991)에 전재.

서정인가 서사인가 교술인가 하는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들의 큰 갈래에 대한 고찰이라 하겠다.

앞서도 언급되었듯이 대체로 큰 갈래는 이론적 갈래이며, 작은 갈래는 역사적 갈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 갈래의 경우 그것이 이론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구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갈래 구분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셋째, 이처럼 갈래 구분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 문학을 여러 갈래로 구분하는 기준은 확실하고 타당해야 한다. 이때 어떤 기준을 내세우는가 하는 것은 물론 연구자의 관점에 관한 문제다. 다시 말하면 문학의 분류 기준은 관점에 제한되는 것이며, 따라서 각 갈래의 개념도 개인적으로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분류 체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수없이 가능한 체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체계에 너무 배타적으로 의존한다면 이론적 국면과 역사적 국면 사이의 갈등에 직면하기 마련이고, 따라서 명백한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런 경우 보통 일반적 분류 기준은 '유사성'에 둔다. 이 유사성은 작가의 정신적 태도, 예컨대 인생관과 세계관의 유사성(표현론), 문학이 독자에게 끼치는 효과의 유사성(효용성), 언어 매체나 형식의 유사성(구조론), 작품이 반영한 세계의 유사성(모방론)의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사실 이러한 유사성들은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강조의 문제다.

넷째, 이 분류기준과 관련된 또 하나의 문제는 갈래를 명사로 기술하는 것과 관형어로 기술하는 것, 이상 두가지의 기술 체계에 관계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흔히 큰 갈래를 외적 형식에 의거해 분류할 때, 서정, 서사, 극이라는 명사형을 사용하지만 내적 형식을 기술할 때는 서정적, 서사적, 극적이라는 관형사형을 사용한다. 요즘은 관형사형 기술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선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명사형에서 관형사형으로의 용어 변이는 특수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것, 구체적 작품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sup>

11) 폴 헤르나디, 앞의 책 참조 여기에 제시되는 문학의 네가지 측면은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거울과 램프'에서의 도식에서 나온 것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M.H.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참조)

12) 가령, 이 문제에 대한 김홍규와 조동일의 태도를 보자. 김홍규는 '큰 갈래를 역사적 갈래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래 연구는 이런 기본적 문제들의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문학을 질서화하고 문학적 체험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갈래 개념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갈래 연구는 그 자체 문학적비평이며 다른 비평들의 기초가 된다.

### Ⅲ. 歌辭의 갈래 규정에 관한 초창기 업적과 그 문제점

앞장에서 살핀 것처럼 갈래의 상위 개념인 큰 갈래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라 인식할 수도 있다. 이것은 갈래의 하위 개념인 작은 갈래들을 포괄하고 나아가 많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작품들의 기본적 속성을 지칭한다. 지금까지 歌辭의 갈래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하나의 독립된 작은 갈래로 보는데 이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sup>13)</sup>

따라서 자연히 문제의 초점은 歌辭라는 작은 갈래를 어떤 큰 갈래에 편입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때 큰 갈래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분류되는 것인가에 쏠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국문학 연구사에서 처음으로 큰 갈래를 詩歌와 散文으로 나누고, 歌辭를 詩歌에 넣어 정리한 이가 이병기이다.<sup>14)</sup> 한편, 조운제는 歌辭를 詩歌의 일종으로 다루던 기존의 관습에 의문을 보이며, 歌辭의 갈래를 다음 세가지로 규정 했다. 즉 '歌辭는 형식은 詩歌이고 내용은 文筆이어서, 詩歌文筆의 양면성을 동시에 구유한 형태 문학', '우리나라의 독특한 형태 문학의 하나이어서 세계 문학으로 보아 일종 변태적인 것이라 할지도 모른다', '韻文學으로부터 散文學으로 넘어가는 도정에서 발생되었다'는 언급이 그것이다.<sup>15)</sup>

---

의 이해를 위한 좌표적 개념틀로서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관형사 계열의 용어를 사용(『한 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하는 반면, 일찍이 명사적 용어를 선호했던 조동일은 '갈래 소속을 말해주는 명사 계열의 용어와 작품(역사적 갈래)의 이차적 특성을 지칭하는 관형사 계열을 구분'하는 태도를 보인다(『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1. p.19. 참조).

13) 최근 성호경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있기는 하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주장은 몇가지 점에서 주목해야 하리라 여겨지는데 자세한 것은 뒤에서 상술한다. "가사의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화연구논총』 12집(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 참조.

14) 이병기, 『국문학개론』(일지사, 1961).

15) 조운제, 앞의 책과 『국문학개설』(동국문화사, 1955)의 歌辭 부분 참조.

## 歌辭의 갈래적 성격 연구(1)

여기서 조운제가 우선 큰 갈래를 크게 운문과 산문으로 대별하는 2분법적 입장에서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운율(특히, 율격)의 형식적 조건으로 문학의 큰 갈래를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2분법은 상대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운율은 국문학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소설 같은 서사 갈래에도 있을 뿐 아니라 『제왕운기』 등의 史書의 일종에도 韻文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가 歌辭를 일종의 변태문학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에는 문학의 갈래를 2분하는 기본전제의 오류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갈래 연구에 있어서 구체적 작품의 관찰에 못지 않게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작업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

이능우가 ‘歌辭는 隨筆이다.’<sup>16)</sup>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이론적 오류도 역시 이와 유사한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즉 그는 기존의 2분법을 지양하고, 3분법을 채택하여 큰 갈래를 시, 소설, 수필의 셋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歌辭는 수필에 속한다는 논리인데, 그의 이런 논리는 관습상의 갈래적 개념을 썼다는 것과 회곡 갈래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관습어가 포괄하는 하위 양식이 본질과 속성을 달리하는 데에도 그것을 변별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sup>17)</sup>

큰 갈래의 구분에 있어서 3분법을 보다 분명히 제시하고, 아울러 歌辭의 갈래 귀속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체계화한 이는 장덕순이다. 그는 국문학에 서구적 갈래 개념을 적용시켜 크게 서정적 양식, 서사적 양식, 극적 양식으로 3분 하였다.<sup>18)</sup> 그리고 歌辭의 경우 주관적이며 서정적 歌辭는 詩歌로, 객관적이며 서사적 歌辭는 수필로 양분하여 각각 서정적 양식과 극적 양식으로 편입시켜 갈래를 규정하였다. 그는 작품의 내용이 서정적이나 서사적이나 하는 것을 가지고 갈래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는 『詩歌로서의 歌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江湖生活의 양반가사, 월령체 형식을 취하여 상시연정을 읊은 관동가, 十二月歌, 思親歌 등과 主情的인 內房歌辭, 그리고 十二歌詞, 雜歌, 서정적 평민가사를 들었으며, ‘수필로서의 歌辭’에는 교훈적 도덕적인 양반가사, 기행가사, 유배가사, 계녀가사, 서사적인 평민가사, 골계가, 불교가 류를 들었다.<sup>19)</sup>

16) 이능우, 『국문학개론』(국어국문학회, 1954).

17) 김학성, “장르론의 반성과 전망”, 『국문학의 탐구』(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18) ‘양식’은 원래 인간 정신이 문화적 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방식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용어의 사용을 통해서 볼 때 문학 갈래에 대한 인식이 형식적 측면에서 내용적 측면으로 이행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용어는 주로 독일 문예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빌어온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사항은 허창운, 『현대 문예학 개론』(서울대 출판부, 1986). 참조.

그는 슈타이거의 개념<sup>20)</sup>을 원용하여, 외적 형식보다 인간 정신 등 내적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문학 갈래를 서정적, 서사적, 극적 양식으로 3분 했는데, 사실 이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화된 분류 체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형식적 유사성보다 내용적 유사성이 중요한 분류 기준으로 채용되는데, 그러나 이러한 3분법은 그 기준이 무엇이든 문학을 상상 문학, 허구적 문학으로 제한시킨 좁은 의미의 문학관에 근거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의 기록인데 비하여 문학은 가능한 세계의 기록이라 했을 때, 그가 의도한 것은 문학 갈래가 아니라 문학 자체의 개념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선을 창조성의 여부로 규정하는 이런 좁은 의미의 문학관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 3분법설인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된 이런 3분법의 사고의 이론적 체계에 결정적으로 공헌한 헤겔의 입론인 주관적, 객관적, 주객관 합일적이라는 인식은 그 용어나 실질에 있어서 다소 모호한 면이 있다.<sup>21)</sup>

따라서 이 기준을 가지고 歌辭를 양분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무리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수필을 서사적 양식이라 범주화한 것도 이와같은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다. 사실 歌辭라는 한가지 역사적 갈래를 두가지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그 의미 실질을 차치하더라도 논의의 설득력을 처음부터 반감시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략 살핀 바와 같이 歌辭의 갈래 규정을 위한 초기의 논의들은 주로 2분법이나 3분법으로 큰 갈래를 규정하는 밑받침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밑받침은 뚜렷한 이론적 기초나 원리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큰 갈래와 작은 갈래의 구분 의식이나 용어 사용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2분법에 비해, 다소 보완되고 보편적으로 쓰여온 3분법에도 문제점이 많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歌辭는 서정, 서사, 희곡이라는 양식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 해서 이후 연구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큰 갈래를 설정하게 하는데 직접적 구실을 하였다.

19) 장덕순, 『국문학통론』(신국문화사, 1963). 한편, 그의 이런 갈래 의식은 그의 문학사 서술에 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되었다. 『한국문학사』(동화문화사, 1975)을 참조할 것.

20)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 역, 『시학의 근본개념』(삼중당, 1978).

21) 김준오, 앞의 책, pp.19~20. 헤겔, 최동호 역, 『헤겔시학』(열음사, 1987). 참조



#### IV. 교술갈래 설정(4분법)과 그 의미

조동일 갈래 체계의 독특한 면은 기존 큰 갈래의 3분법 외에 교술 갈래의 설정과 이에 따른 큰 갈래의 4분법적 체계 확립에 있다. 그는 한국 문학의 각 역사적 갈래의 검토를 통해,<sup>22)</sup> 큰 갈래의 구분에 있어 나름의 새로운 4분법을 제창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구체적인 문학사인 『한국문학통사』를 저술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에게 있어 갈래 이론은 역사적 갈래 즉 작은 갈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묶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출발한다. 갈래 연구가 큰 갈래의 규정에서 출발할 때 그것은 연역적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가 가설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의 연구 업적은 역사적 갈래들의 연구에서 만이 아니라 거시 이론적 영역에서도 평가되고 동시에 많은 쟁점이 되어 왔다.

그에 의하면 歌辭라는 작은 갈래는 敎述이라는 큰 갈래에 속한다. 그는 갈래로서 歌辭가 가지는 전반적 특징을 찾아내서 세가지로 요약하여 첫째, 있었던 일을, 둘째, 확장적 문체로, 셋째, 알려주어서 주장한다고 정리한다.<sup>23)</sup>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은 가사가 서정, 서사, 회곡 세가지 갈래중 그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가사의 속성을 포함하는 제4의 큰 갈래로 교술을 설정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敎는 알리어서 주장한다는 뜻이요, 述은 어떤 사실이나 경험을 서술한다는 뜻으로 이 교술 갈래에 속하는 작은 갈래로는 율문인 歌辭 외에도 산문인 기록, 수필, 傳記, 제문, 서간 등을 포함 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술이 보편적인 갈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문학의 賦와 서구의 敎訓 갈래를 예로 들었다.

그리하여 이런 교술 갈래의 개념은 서구 문학 갈래의 4분법 중에서 교훈 문학과 일치하고 '이미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는 동시에 검토하고 비판하는 '토의 문학' 혹은 산문 문학과도 일치한다. 어떤 사실을 주장하고 전달하는 문학 갈래라는 점에서 교술은 논픽션류를 포함할 뿐 아니라 작품내적 자아와 세계의 관계 곧 작품은 하나의 수단일 뿐 작품 외적 자아와 세계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모든 주제적 문학, 다시 말하면 사상 위주의 문학도 포괄한다.

이처럼 조동일은 그동안 국문학계에서 갈래 처리의 문제로 쟁점이 되어온 歌辭

22) 이에 대한 그의 일련의 작업은 『한국문학의 갈래이론』(집문당, 1991.)에 한데 묶여져 있다.

23) 조동일, 『歌辭의 장르 규정』, 앞의 책, 같은 곳.

의 갈래를 처리하는 데 교술을 첨가한 4분법의 당위성을 내세운 이후 일관되게 이를 주장해왔다.

기존의 3분법과 여기에 '敎述'을 추가한 새로운 4분법의 대립은 근본적으로 문학관 자체에서 발생한다. 3분법이 문학을 좁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 상상 문학에 국한시킨 데에서 오는 분류 체계이며, 4분법은 넓은 의미의 문학관에서 가능한 체계이다. 따라서 4분법은 문학의 영역을 확대 시킨다. 교술 갈래의 설정으로 과거 서정, 서사, 회곡의 3분법적 큰 갈래에 의해 그 어디에도 귀속시키지 곤란했던 歌辭와 같은 것들의 귀속 문제가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갈래 연구사에 있어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갈래 체계는 4분법이어야 하고 이것으로써 '천고의 의문이 풀렸다'<sup>24)</sup>라고 한 그의 과장적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실질이다.

그러나 교술이라는 제 4갈래의 설정은 전통 3분법이 당면하지 않은 난관을 남긴다. 4분법이 문학의 영역을 확대한만큼 문학과 비문학의 구별이 모호해지고 따라서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작업이 연구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술을 문학의 한 갈래로 설정할 때 문학내의 경계선이 아니라 문학과 비문학의 경계선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소설이라는 작은 갈래를 다룸에 있어 음양의 대립에서 그 본질을 찾고 시조의 서정적 자아를 性과 情의 개념에서 찾은 그의 갈래 이론이 이기철학에 근거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갈래 체계는 서구의 갈래 체계를 종합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사실 그의 敎述 갈래 체계는 서구 이론 체계의 didactic의 개념<sup>25)</sup>과 흡사하며, 그의 갈래 구분의 기준 중에서 화자의 문제가 일관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화자를 중심으로 갈래 체계를 세운 것은 서구의 전통적 갈래 규정의 방법이다. 그가 서정과 교술을 '일방적 대상화'로 규정했을 때 이 두 갈래에서 자아

24)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77.), p.104.

25) Herbert Seidler는 서정, 서사, 회곡에다 교술을 추가하고 있는데, 서정은 內省의 서사는 관찰의 회곡은 매료의 교술은 정관의 성향을 보이고 각각 노래하기와 서술하기, 재현하기와 보여주기 및 각각 친연성을 갖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서정은 시인의 직접적 체험의 표현을, 서사는 작가의 사건에서 분리된 표현을, 회곡은 작가의 사건 속에 내포된 표현을, 교술은 질서화된 전체의 교훈적 구성을 각각 드러내는 것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헤르나다, 김준오 譯, 『장르론』(문장사, 1983.)의 내용을 참고 했음.

가 철저하게 작품의 화자임을 시사한 것이다. 교술에 속하는 歌辭가 서정시처럼 일인칭으로 서술되는 점에 그가 주목한 점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어찌되었든, 歌辭를 敎述 갈래로 보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그의 4분법적 갈래론은 한마디로 어떤 異論이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명쾌하게 보인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치명적 약점 또한 같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

문학 연구는 작품이라는 현상을 놓고 벌이는 이차적 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갈래 연구라고 해서 이에 예외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조동일이 명쾌하게 이론적으로 밝힌 큰 갈래 4분법과 거기에서의 작은 갈래 귀속이 실제로 작품상에서 얼마나 근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한마디로 이론과 실제의 거리 문제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문학의 원론에 대한, 문학의 갈래에 대한 기본적인 원초적인 물음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서 다음 두가지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 (1) 서정(적인 것), 서사(적인 것), 회곡(적인 것), 교술(적인 것) 등의 큰 갈래는 일정한 원리 요건에 따라 서로간의 경계선이 확연히 구분되는 범주적 개념인가, 혹은 일정의 이념형으로서 그들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인정하는 좌표적 개념인가?
- (2) 위의 둘 중 어떤 입장을 취하든, 큰 갈래들은 역사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있는 실체인가, 혹은 문학의 다양한 작은 갈래들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여기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의 장치인가?

앞의 질문은 갈래의 순수론과 비순수론에 관한 쟁점의 문제이며, 뒤의 것은 실재론과 명목론의 쟁점에 관한 문제이다.<sup>26)</sup> 다음에 살펴볼 4분법의 비판 이론들은 이런 의문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 V. 교술갈래 설정(4분법)의 비판과 그 대안의 검토

갈래 연구에 있어서 부딪치는 난관들 중의 하나는 큰 갈래와 작은 갈래를 연관시킬 때 발생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큰 갈래를 규정하는 개념이 협소하거나 부적합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갈래 규정에 있어서는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26)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86.), p.32. 여기에 대해 김홍규는 모두 후자의 입장을 취한다. 즉 큰 갈래의 체계는 다양한 역사적 갈래들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된 개념틀로 보는 것이다.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모든 歌辭가 교술적 특성만을 보이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시조가 서정적 특성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실제 문학사 기술에서 개념적 명칭과 실재 작품 사이, 곧 문학적 개념들로 정의되는 갈래의 본질과 작품으로 구체화된 갈래의 현상 사이의 불일치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문학 작품치고 어느 하나의 갈래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에서처럼 갈래의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된다. 이런 점에서 명사형 대신 관형사형으로 기술되는 양식 개념이 갈래론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歌辭의 갈래 귀속 문제는 조동일의 敎述 갈래의 4분법의 자극을 받아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 되었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歌辭의 복합적 성격이 양식의 개념으로 기술된다. 이론보다 작품의 실제에 주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동일의 갈래 4분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歌辭의 敎述 갈래로의 편입은 분명히 갈래 연구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런 다소 독단적으로 보이는 갈래론은 어찌보면 당연하게도 그 후 김병국, 김학성, 김홍규 등의 반론에 부딪치게 된다.

김병국은 갈래의 구분은 분류를 위한 도식이 아니라 문학적 텍스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다원적 구조의 원리를 깨닫고자 하는 것이라는 헤르나디의 말을 전제로 하여 歌辭를 교술로 처리한 4분법 체계의 도식성을 비판한다.<sup>27)</sup> 여기서 그는 헤르나디의 시점, 곧 화법을 기준으로 구조조론에 따라 정철의 '성산별곡'을 주제적 양식으로, '관동별곡'을 서사적 양식으로, '속미인곡'을 회곡적 양식으로, '사미인곡'을 서정적 양식으로 처리하는 유연성을 보인다. 즉 歌辭의 개별 작품들은 주제적이거나 서사적이거나 극적이거나 서정적이거나 어느 하나의 양식에만 획일적으로 속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sup>28)</sup>

김학성도 이와 비슷하게 갈래의 비순수론의 입장에서 기존의 3분법이나 4분법이라는 개념의 틀에 맞추는 정태적 갈래론으로는 가사의 갈래 규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못박는다. 그는 문학의 형식과 정신을 구분하여 서정적, 서사적, 극적 정신이 서정, 서사, 극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보는 기야르의 9가지

27) 김병국, "장르론의 관심과 歌辭의 문학성", 『현상과 인식』, 1977년 겨울호

28) 김광조의 논문은 정철 가사에 대한 이런 관점을 충실히 재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 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7.)

### 歌辭의 갈래적 성격 연구(1)

개념틀을 이용하여 여기에는 교술의 정신을 추가하여 모두 12가지 개념의 틀을 만든다. 그에 의하면 전기 가사는 기본적으로 서정 형식이다. 그러나 이 서정의 옷에 서정적, 서사적, 교술적 정신을 동시에 지닌 복합적 갈래다. 그리고 후기 가사는 기본적으로 주제 형식이다. 그리고 여기에 서정적, 서사적, 교술적 주제 양식으로 극대화되어 실현된다는 것이다.<sup>29)</sup>

그의 이런 기술은 앞서 김병국의 경우보다 더 개방적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이른 역시 4분법의 변용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서정적, 서사적, 극적, 교술적 정신은 모든 문학에 나타나는 4가지 규범인 것이다.

김홍규는 조동일의 4분법 체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비순수론과 명목론의 입장을 분명히하고 구분이 곤란한 歌辭와 같은 작은 갈래를 ‘중간적 혼합적 갈래’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다.<sup>30)</sup> 이와 관련하여 용어에 있어서도 명사형 대신 서정적, 서사적, 극적, 교술적 등의 관형사형 사용에 동의한다. 이 관형사형이 세계관, 곧 정신과 같은 내적 형식을 가리키는 양식의 개념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역시 문제는 상존한다. 즉 ‘중간적 혼합적 갈래’가 다른 큰 갈래들과 동질적인 성격을 띤 분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의 근거로서는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대안의 근거로 보기에는 미약한 구석이 많다.

조동일에 있어 단순하고 분명하게 보이던 한국 문학 혹은 歌辭의 갈래 규정이 이들 일군의 4분법 비판 그룹에 이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선 이들의 반론은 주로 외적 형식보다 인간 정신과 같은 내적 형식을 분류 기준으로 하는 양식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 경향으로는 歌辭는 4·4조, 4음보의 연속체라는 형식적 조건 이외에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 필연적으로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양식론은 歌辭의 갈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이 되고 있으며, 이는 조동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도식성의 위험을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지니게 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서정적, 서사적, 교술적, 극적으로 표현되는 ‘양식’ 개념과 역사적 갈래 사이의 관계이다.

파울러의 이론은 이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유익한 관점을 제시한다.<sup>31)</sup> 그에 의하

29) 김학성, “가사의 장르 성격 재론”, “가사의 실현화 과정과 근대적 지향”, 『국문학의 탐구』(성균관대 출판부, 1987.)

30)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민음사, 1986.)

31) 이하의 논술은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참조

면 관형사형으로 기술되는 양식의 용어가 역사적 갈래의 명칭과 연관될 때 이 역사적 갈래는 복합 갈래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 형식은 오직 그 역사적 갈래에 의해 결정된다. 그에게 갈래란 한 작품 전체의 유형이지 한 작품의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근본 개념은 아닌 것이다. 양식은 내적 형식의 기능으로서 갈래의 한 구성요소다. 큰 갈래를 보면 슈타이거 같은 체계 시학의 경우 양식은 '이념형'으로 그 갈래가 한정되어 있지만, 작은 갈래를 중시하는 파올러에게 양식은 무제한적이다.

갈래의 기술은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기술의 두가지가 있다. 전자는 영구불변적 갈래들에 대한 추상적 고찰인데 비하여 후자는 일반 이론의 정립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개별적 갈래들의 연대기적 역사를 더듬는 일로 전자가 갈래의 불변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후자는 그 변화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여기서 작은 갈래가 형성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이 작은 갈래가 다시 하위 갈래로 분화되고 변화하는 것과 '양식화' 되는 즉 큰 갈래로 변화하는 과정,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관점은 매우 유익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고려할 때, 歌辭의 갈래 규정에 있어서 기존 4분법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대부분의 논자들은 대부분 갈래 이론의 역사적 추세에 발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갈래 구분이 문학을 분류하기 위한 임의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에서 한단계 진전하여 갈래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을 뿐더러 전통적인 종류의 갈래는 혼합되는 수도 있고, 신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갈래의 포괄성이나 풍부함을 중시하는 근대적인 갈래 이론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歌辭의 경우 문제의 초점은 歌辭라는 갈래가 여러 큰 갈래들 중에서 교술에 속하는가 서정에 속하는가 서사에 속하는가 라는 문제보다는 서정적 특성이 짙게 풍기던 歌辭가 어떤 경로를 통해 서사적 혹은 교술적 특성을 품게 되었으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이 좀더 축적될 때, 즉 작은 갈래로서의 歌辭의 특성과 성격이 더욱 분명해질 때, 우리는 더욱 명료하고 체계적인 문학 갈래의 이론을 만나게 될 것이다.

## VI.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고는 歌辭의 갈래 규정에 관해 기존의 논의와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개과정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 문제는 그야말로 복잡하고 객관화 시키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이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큰 갈래 체계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믿음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즉 지금까지의 갈래 연구의 주 방향이 '보편 실재론'에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갈래의 '역사적 실재론'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sup>32)</sup> 이런 인식이 선행하지 않으면, 歌辭의 본질 구명이나 갈래 규정에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어떤 증거에 의하든 그것이 歌辭의 복합적 성격을 만족시킬 만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해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갈래 문제는 항상 이론적 작업과 구체적 역사성의 고찰이라는 다소 상이한 두 작업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이루어내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바 국문학 갈래 이론가 중에서 대표적인 '보편실재론'자인 조동일이 실재 역사적 갈래의 변모양상을 다루는 『한국문학통사』를 쓰면서는 기존의 독단적이고 규범적인 갈래관에서 탈피하고 다소 유연적 태도 변모를 보여준다<sup>33)</sup>는 것은 이런 사실을 잘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필자가 보기에 歌辭의 갈래 문제를 만족할 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접근 방법이 동시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歌辭라는 역사적 갈래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변모 양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전기에는 서정적 가사가 유행하다가,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서사적 가사나 교술적 가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문학 담당층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연구

32) 김홍규는 일찍이 갈래 연구의 이론적 가능태를 다음의 세가지로 규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래 연구의 방향에 있어서는 '역사적 실재론'으로의 전환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 갈래 연구의 세가지 가능태는 ① 장르 명목론 : 실재하는 것은 구체적 작품들 뿐이며, 이들의 일정한 군집을 지칭하는 장르란 큰 갈래이든 작은 갈래이든 실재성이 없는 명목에 불과하다는 입장. ② 보편 실재론 : 역사적 장르의 실재성을 인정한 위에, 이들을 분석 포섭하는 보편적 범주 또는 원질의 초시대적, 범문화적 실재성을 인정하고, 이에 의해 장르 체계를 수립하는 입장. ③ 역사적 실재론 : 실재하는 것은 작은 갈래의 역사적 장르들뿐이며, 이들을 포섭한다고 하는 보편적 범주는 실재가 아니라 다만 역사적 장르들의 복잡한 속성과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가설 및 개념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장르론의 관심과 경기체가", 『백영 정병욱 선생 화갑기념 논총』(신구문화사, 1982.), 참조.

3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1권(지식산업사, 1990.), p.27. 그는 여기에서 갈래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일수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슈타이거적 어조로 서정, 서사, 극, 교술은 "장르자체가 아니라 장르가 택할 수 있는 네가지 기본 성향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업적도 상당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세부적 실체를 명확히 밝히려는 노력의 의의는 아직도 전채하다.

이런 문제 의식으로 필자는 우선적으로 『古寫本 蘆溪集』에 주목한다.<sup>34)</sup> 朴仁老의 歌辭 특히 ‘陋巷詞’의 경우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의 점점에 위치하며 변모 양상의 단초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간 수많은 이들의 관심이 되어 왔다. 古寫本의 경우 훨씬 다양한 모습의 변모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으로, 이의 성격 규명은 歌辭의 갈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례로 활용하기에 용이하다. 이 문제는 필자의 다음 작업의 대상이 된다.

둘째는 앞서 성호경의 지적<sup>35)</sup>처럼 우리가 흔히 ‘歌辭(詞)’라고 지칭하는 일군의 역사적 갈래에 대한 실체의 탐구다. 우리는 흔히 歌辭라는 역사적 갈래를 선형적으로 별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상당한 혼란에 접하게 되어 모호해지는 면이 없지 않다.

예를 들면, 歌詞와 歌辭는 같이 혼용되어 쓸 수 있는 개념인가? 국악에서 이야기 기하는 12 歌詞의 노랫말과 문학에서 말하는 歌辭의 변별점은 무엇인가? 불교 음악의 일종인 화창의 노랫말과 소위 불교 歌辭로 분류되는 일군의 작품군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歌辭와 雜歌는 현단계의 논의처럼 뚜렷이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는 결국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歌辭라고 묶어 이해하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하나의 범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의문들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서 빈번히 이루어진 詩歌 혹은 歌謠 文學의 갈래 교섭 문제와 더불어서, 歌辭의 갈래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데 선행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일한 역사적 갈래라고 여기고 있는 歌辭가 과연 그 본질을 단일하게 상정하고 논의해도 가능한 것인지를 작품의 검토를 통해 새롭게 검토하는 작업이, 필자의 예상되는 또 하나의 후속 작업이 될 것이다.

34) 이에 대해서는 김문기, “蘆溪集 古寫本의 考察”, 『동양문화연구』 7집(경북대 동양문화연구소, 1980)과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고려대 석사논문, 1993)을 참고할 것.

35) 각주 10번의 내용과 그의 논문, “가사의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화연구논총』 12집(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을 참고할 것.



## 歌辭의 갈래적 성격 연구(1)

결국 본고는 歌辭의 갈래 구정에 대하여 명확한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는 서론적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이는 이 논문 서론에서 이미 밝힌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해답을 바라거나, 계속 제기되는 문제들을 피해갈 수도 없다고 본다. 요컨대 갈래론은 문학작품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기술적인 각도로 나아가, 역동적 실체로서의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갈래 연구는 문학 연구라는 순환버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전체성' 혹은 '총체성'이라는 가치 인식과 더불어 문학 연구에서 갈래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이루어진 연구사 검토와 문제 제기를 통해 歌辭와 갈래라는 문제, 혹은 부분과 전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의 존재 의미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여기에 제시되는 참고문헌은 본고를 작성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주위에서 비교적 쉽게 구해서 볼 수 있으며, 앞으로의 지속적 논의에 대한 전제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을 골라서 작성한 것이다. 배열 순서는 참고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 인명순으로 했다.

### <단행본 및 논문>

- 김광조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김병국. “장르론의 관심과 가사의 문학성”. 『현상과 인식』, 1977년 가을호(이후 『고전시가론』, 새문사, 1984에 전재)  
김수업. 『배달 문학의 갈래와 흐름』, 현암사, 1992  
김영철. “한국 개화기 시가 장르의 형성과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6  
김유경. “서사가사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8  
김준오. “장르 의식의 해체”. 『민족 지성의 회고와 전망』, 문학과 지성사, 1985  
———. 『한국 현대 장르 비평론』, 문학과 지성사, 1990  
———. “장르의 생성·발전·소멸”. 『한국문학사 서술의 제문제』, 단국대 출판

부, 1993

- 김학성. 『국문학의 탐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987
- 김현 편. 『장르의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7
- 김홍규. “장르론적 관심과 경기체가”. 『백영 정병욱 선생 화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 .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 . “판소리 관계 연구논저 목록”. 『판소리 연구』 1집. 판소리학회, 1989
- . “판소리의 장르적 성격과 부조”. 『동양학』 20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90
- 류해춘. “장편 서사가사의 서술방식과 작가의식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1993
- 박영주. “가사의 갈래규정과 체계화 방안”. 『성대문학』 25집.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1987
- 성기욱. “국문학 이해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학 개론』. 새문사, 1992
- 성호경. “가사의 개념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화연구논총』 12집.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91(이후 『한국시가의 유형과 양식 연구』. 영남대 출판부, 1995에 전재)
- 윤석창. “가사의 장르적 복합성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1984
- 이능우. 『국문학개론』. 국어국문학회, 1954
- . 『가사문학론』. 일지사, 1977
- 이병기. 『국문학 개론』. 일지사, 1961
- 이혜순. “歌詞·歌辭論”. 서울대 석사논문, 1967
- 이혜전. “조선후기 가사의 서사성 확대와 그 의미”. 이화여대 석사논문, 1991
- 장덕순. 『국문학통론』. 신구문화사, 1963
- . 『한국문학사』. 동화문화사, 1975
- . “국문학의 장르”.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장정수. “서사가사 특성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9
- 정혜원. “가사의 장르적 성격”.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 . 『한국문학의 갈래이론』. 집문당, 1991
- . 『한국문학통사』 1~5권(제3판). 지식산업사, 1994

歌辭의 詩學적 성격 연구(1)

- 조운제. 『조선시가의 연구』. 을유문화사, 1948  
——. 『국문학개설』. 동국문화사, 1955  
주종연. “가사의 장르고”. 『서울대 논문집』 3집. 서울대학교, 1971  
——. “가사의 장르고(2)”. 『국어국문학』 62-63집. 국어국문학회, 1973  
——. “가사의 장르고(3)”. 『국민대 논문집』 12집. 국민대학교, 1978  
최유찬·오성호 “문학의 장르”. 『문학과 사회』. 실천문화사, 1994  
한창훈. “박인로·정훈 시가의 현실인식과 지향”. 고려대 석사논문, 1993  
허남춘. “서사민요란 장르규정에 대한 이의 : 제주 시집살이 노래를 중심으로”.  
『제주문화연구』. 제주문화, 1993  
허창운. 『현대 문예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외서 및 번역서>

- Alastair Fowler. *Kinds of Literatu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M.H.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볼프강 카이저. 김윤섭 역. 『언어 예술 작품론』. 시인사, 1988  
에밀 슈타이거. 이유영·오현일 역. 『시학의 근본개념』. 삼중당, 1978  
초란 크라바. 백종유 역. ‘장르’. 『현대문학의 근본개념 사전』. 숲, 1996  
츠베탕 토도로프. 광광수 역. 『구조시학』. 문학과지성사, 1977  
폴 헤르나디. 김준오 역. 『장르론』. 문장사, 1983  
헤겔. 최동호 역. 『헤겔 시학』. 열음사, 1987  
——. 두행숙 역. 『헤겔 미학』 1~3권. 나남, 1996